

혼란 가중되는 순천 보선... 다자경쟁?

■ 민주 '통 큰 양보론' 후폭풍

예비 후보·지역 의원 무공천 반발 확산 경쟁력 있는 후보 무소속 출마 잇따를 듯

민주당이 4·27 재보선에서 텃밭인 순천 등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는 이른바 '통 큰 양보론'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였다.

"가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통 큰 양보를 하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20일 발언이 순천과 경남 김해를 양보 결정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논란이 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순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순천을 무공천 지역으로 정할 경우 이에 반발한 경쟁력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천 보궐선거가 다자간 경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공천' 반발 확산=호남권 내에서는 순천 보궐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양보는 안된다"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난주 별도 회동에서 '선(先) 순천 양보론'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순천 보궐선거의 경우 조순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 허상만·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구희승·신태호 변호사, 박상철 경기대교수,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이광수 전 민주당 대

변인 등이 일찌감치 경쟁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多者) 경쟁 되나=손 대표의 구상대로 민주당이 순천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것으로 유력 시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노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민주당 예비후보 중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더라도 승산이 충분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순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천 양보는 순천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내지는 연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논리"라며 "일단 지도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전 수석 외에도 구희승 변호사,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 박상철 경기대 교수 등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야권 단일 후보인 민노당 후보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등 3~4명의 후보가 '다자경쟁'을 벌일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민노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일부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비교해 대중 인지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



악수하는 박지원 원내대표-김항식 총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항식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방을 찾아 정부 중립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만, 야권 단일 후보라는 정치적 명분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천에 민주노동당 전남본부장이 있어 민노당 지지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점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지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선거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도도를 확보하고 있고 조직력이 있

는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의 선택도 선거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1일 "민주당이 손 대표 뜻처럼 순천을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하면 선거판도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첫 야권연대가 성사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재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를, 순천 등 3곳의 4·27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중 민노당은 순천을, 참여당은 김해를 지역을 양보할 것을 민주당에 각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보선 지역을 일괄 협상하면서 '선(先) 양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탕평 특보단' 눈길

주승용·이용섭 등 11명 계파별 인사 고루 포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초계과 성향의 특별보좌관을 띄워 눈길을 모으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 대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11명을 특별보좌역으로 내정하고 이번 주 내에 공식 특보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손 대표의 특보단은 당내 각 계파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어 '탕평 특보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특보단장에는 이라는 손학규계의 핵심인 신학용 의원이 내정됐다. 하지만 친(親) 정세균계인 노영민 의원과 친노계인 백원우 의원, 쇄신연대 소속으로 친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강창일, 주승용 의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지원 원내대표와 가까운 박선숙 의원과 계파 성향이 얇은 이용섭 의원, 구민주계인 안규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통 특

보단은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관례지만 손 대표의 특보단은 타 계파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어 '새 불리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며 "각 계파에서도 이번 특보단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타 계파 영입이 '끼워넣기' 차원이며 결과적으로 별다른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동기금 조성" VS "공적자금 투입"

여야, 저축銀 해법 장외공방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법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를 촉구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우재창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적자금 투입 주장으로 맞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음에는 반발했던 은행이나 보험업계도 지금까지 쌓아온 보험기금은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낼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기금을

조성,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조건을 달아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인이 출연한 우재창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금융감독국의 저축은행 감독실패 책임을 모면하고 지지도 하려 공법 대신 리스크를 미래로 돌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민형배 국회서 비정규직 해법 발표

민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공공부문 최초로 청사 기간제 근로자 6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초청해 사례 보고를 들었다.



민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해 "따뜻한 자본주의가 효율도 더 높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복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균형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정규직 해법을 포함한 복지 전략 기준으로는 지자체와 국회의 '분업에 기초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구희승 순천 보선 출마 선언

구희승(48) 변호사는 21일 "그 동안 쌓아온 중앙정부 인맥을 총동원, 순천 정권박람회 성공개회를 위한 예산을 끌어오는 등 정권박람회가 지역 행사가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27 순



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안권 개발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은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도시 통합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순천을 전남의 중심도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평민당 전남도당위원장 조명제

평화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남도당 위원장에 조명제 전 박종영 전남도지사 정부비서관을 임명했다. 평민당은 또 김호동 광주시민연대 사무총장을 광주시당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했다. 평민당은 광주시당 사무실을 광주 남구에, 전남도당 사무실을 전남 목포에 새로 마련해 조만간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호남지역 지지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전남도당 오늘 정책세미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오후 광주 북구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전남 농산어촌 관광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제4차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진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발표를 하고, 이진하 임실 치즈마을 위원장, 이운배 강진 달마지 마을 위원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영록 도당위원장도 직접 토론에 참석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권이 22일 4·27 재보선 연대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순우,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이번 4·27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동을 주선한 이찬 전 총리,

재보선 야권 연대 본격 논의

야4당 대표 오늘 국회서 첫 회동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등 4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도 참석, 야4당 대표와 연합공천 방안의 실무협상

을 담당할 '4+4모임'을 발족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 협상이 '5+4'로 불렸던 것에서 창조한국당이 빠졌다.

현재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를, 순천 등 3곳의 4·27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중 민노당은 순천을, 참여당은 김해를 지역을 양보할 것을 민주당에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중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1 교육기간: 2011년 3월 11일(금)~2011년 12월 16일(금):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2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더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3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중시자, 남원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4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5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월) ~ (금) 10:00~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관 (호심관 4층)

7 등록비용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8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지명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지명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